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7월(제83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장학생 여러분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2023 유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 오이타현

지난달 14일, 오이타현청에서 오이타현 사비 외국인 유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현 내 5곳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80명(금액: 연간 36만 엔)으로, 대표 학생이 직접 현청을 방문해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장학생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이타현 사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이란?

본 장학금 제도는 유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이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미래에 오이타와 자국의 가교가 되어 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오이타의 역사, 문화, 산업 등에 대해 배울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이타현 소식

지난달 오이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오이타~한국 서울 항공편, 4년 만에 재개
- 기쓰키시 중학교, 대만 중학생과 교류
- 벳푸시-오사카 관광국, 국내 관광 협정 체결
- 여객선 선 플라워, 대형 여객선 부문상 수상
- 베트남 출신 하오 씨, 사이키시 복지사 자격 취득
- 오이타현/오이타시/벳푸시, 도쿄 사무소 첫 여성 소장 취임
- 유후시 쇼나이 가구라 여성 동호회, 연습에 열중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액티비티는 나카쓰에서!

나카쓰시 관광 정보 나카쓰시

철도가 있던 자리에 만든 자전거 코스 '메이플 야바 사이클링 로드'는 기울기가 완만해 초보자에게 추천. 대자연 속에서 자전거를!

대만 타이중시와 사이클링 관광 및 관광 우호 교류 촉진 협정을 체결하여 정기적이고 우호적인 교류를 추진 중. 앞으로도 계속!

매년 봄·가을에 야바케이 계곡의 역사와 경관, 문화재에 대해 가이드와 함께 트레킹, 워킹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야바하쿠' 개최.

일본 국내에서 손꼽히는 수상 스포츠 시설로, 댐 호수에서 수상 스키, 바나나 보트, 카누 등을 체험. 초보자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

TOUR DE YABAKEI

〈10월 1일(일)〉 뚜르 드 야바케이 사이클 대회 개최 결정!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7월(제83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일본의 로댕이라 불린 이의 탄생 140주년을 기념하며

조각가 아사쿠라 후미오 분고오노시

지난 한 해 동안 한·중·일이 함께한 문화 예술 교류 사업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일환으로 열린 다양한 이벤트 중, 핵심 사업으로 한국 경주시에서 '오이타 아시아 조각전 수상작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서는 오이타현 분고오노시 출신의 어느 조각가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시작된 "아시아 출신 신진 조각가의 등용문 '오이타 아시아 조각전'"의 과거 수상 작품이 소개되었다. 격년으로 개최되지만 응모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200~400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이 조각전을 있게 한 주인공은 바로 일본의 로댕 '아사쿠라 후미오(朝倉文夫)'다. 오늘은 그의 생애와 그의 출신지인 분고오노시에 있는 기념관, 그리고 그의 탄생 140주년을 기념해 오이타현립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 '고양이와 돌아보는 140년, 그리고 현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883년, 자연이 아름다운 분고오노시의 아사지정에서 태어난 후미오는 당시 조각가로 활동 중이던 형을 따라 자신도 조각가가 되기로 결심한 후, 도쿄미술학교(현: 도쿄예술대학)에 합격한다. 후미오는 근처에 있던 우에노 동물원에서 동물을 관찰하고 작품을 만들며 실력을 키웠고, 그중 졸업 작품 '진화'는 특히 예술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졸업 후에는 작업실을 열어 젊은 작가들을 지도하는 데에 힘쓰고 각종 상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조각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의 대표작 '묘지기'를 만들며

아사쿠라 후미오 기념관
제2 전시실의 모습

〈잡았다, よく獲たり〉(1946년)
아사쿠라 후미오 기념관 제3 전시실

대형 고양이 조각 작품(목조)
(왼쪽부터) 〈아이냥 / 후쿠냥 / 아사냥〉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7월(제83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展覧会「猫と巡る140年、そして現在」※~23.08.15

고양이와 돌아보는 140년, 그리고 현재

작품 스타일이 추상주의에서 사실주의로 바뀌었고 이후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게 된다.

후미오는 남녀 인체상, 동물상, 초상(肖像)을 주로 만들었는데, 인체상의 경우 일본인 특유의 몸(서양에 비해 바닥 생활을 하며 발달한 무릎과 발목 근육에 집중)을 묘사했고, 초상의 경우 '어떤 표정이 가장 그 사람다운지'등을 고민해 그 사람의 성격이 작품에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고양이를 매우 좋아해서 많을 때는 한 번에 19마리를 키우기도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한 마리를 무릎에 앉히고 쓰다듬으며 고양이의 골격과 근육의 움직임을 손에 익혀 만든 고양이 작품은 무려 58점이나 된다. 향년 만 81세에 세상을 떠난 그이지만, 그가 남긴 400점이 넘는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오이타는 물론, 일본 전국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직접 방문해 본 기념관에서는 (제1 전시실)젊은 시절의 작품과 애장품 (제2 전시실)여성상 (제3 전시실)동물상 (제4 전시실)남성상 (야외)오이타 아시아 조각전 수상작과 대형 고양이 조각을 볼 수 있었고, 거리를 걷는 느낌으로 구성되어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던 전시회에서는 고양이 조각이 무려 22점이나 있어 그의 고양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생생한 몸짓과 표정을 담은 그의 작품이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길 바라며, 분고오노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기념관을 찾아 작품을 감상해 볼 것을 추천한다.

'고양이와 돌아보는 140년, 그리고 현재'
전시실의 모습

〈다마(좋은 날), たま(好日)〉(1930년)
아사쿠라 후미오 기념관 소장

〈새끼 고양이들, 仔猫の群〉(1927년)
아사쿠라 후미오 기념관 소장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oita.jp)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7월(제8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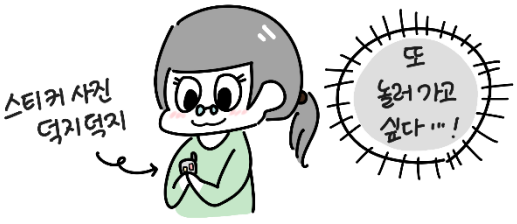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28화

중학생 때, 친구들과 놀러 나가면
'스티커 사진'을 찍고는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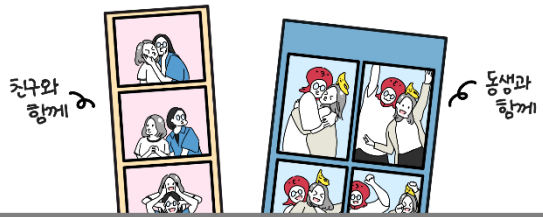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에 글씨를 쓸 수있는게 재미있었고

'스티커'라서 휴대폰 등에 붙여
추억을 떠올릴 수 있기에 참 좋아했다.



그런데 2017년 무렵, '네컷사진'이라는
새로운 사진 문화가 등장했다.

보통 기다란 필름 모양의 프레임에
네 장의 사진을 담을 수 있는 네 컷 사진은
스티커 사진과는 많이 다른데



꾸미기 기능도, 보정 기능도 없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는 게 특징이다.

이제는 친구와 만나면 "네컷 사진 찍자!"
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이 자리잡은
한국의 문화이니, 여러분도 꼭 찍어보길!

이렇게 벽에 붙이면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 되기도 한답니다! (물론 추억회상 할 때도 굿 b)